

더불어
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
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
(본부장: 서미화 의원)

보도일시	2025. 5. 17.(토)	담 당 자	노혜담 선임비서관 (02-784-6441)
배포일시	배포 즉시		

**〈진짜 대한민국〉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,
광주·전남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5·18 민주묘지 참배**
- 서미화 본부장 “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,
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”

-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(본부장: 서미화)가 5·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(토) 오전 국립 5·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.
- 이날 참배에는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광주·전남 장애인단체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, 이들은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(故) 김정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고(故) 김정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, 학생도 아니었다. 공수부대를 발견하고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, 그 결과 공수부대에 붙잡혀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 1980년 5월 19일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.
- 이날 참배는 5·18민주항쟁추모탑에서 서미화 본부장의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묵념, 묘역 순례 순으로 진행됐다.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“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” 고 남겼다.
- 서미화 본부장은 “오월의 광주 역사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.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투쟁하고 있다”면서 “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.3 대선에 승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,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” 고 밝혔다.



(사진설명) 故김경철 열사 어머니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서미화 본부장

